光州日報

제1828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2월 5일 (음력 1월 11일) 목요일

생산현장이 늙어간다

전남 20대 고용, IMF 때보다 41% 급감

광주는 10% ⬇…전남 50~60대 취업 비중 46%로

광주 하남산단의 가전제품 부품 도장(塗裝)업체인 '무등전착'은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고 20~30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총 23명의 직원 중 한국인은 모두가 40~50대다.

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선행 사장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하남산단에 입주해 있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20~30대를 찾기 힘들다"며 "이 같은 현상은 오래됐지만 몇 년 전부터는 젊은 사람을 떠나 사람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생산현장에 고용된 취업자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20~30대 젊은층의 비중은 가파르게 줄고 있는 반면 40~50대 이상 비중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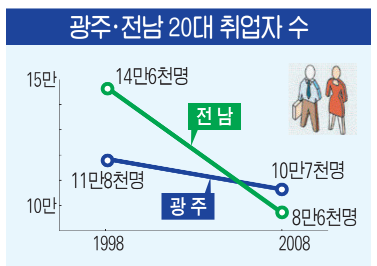
4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20대 취업자는 8만6천명으로 IMF환란 당시인 지난 1998년에 14만6천명보다 41% 줄었다. 광주는 10% 줄어든 10만7천명에 그쳤다.

취업자 100명당 20~30대 비중은 1998년 광주가 54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전남은 37명에서 28명으로 10년 사이 9명이나 줄었다. 특히 20대 취업난은 환란 때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전체 고용인원 중 20대 취업자 비중은 광주가 1998년 23명에서 지난해 16명으로, 전남은 14.6명에서 9.5명으로 급속도로 줄었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취업을 미루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또 생산 주력층에 해당하는 20~49세의 취업자 수도 지난해 광주는 47만7천명, 전남은 48만8천명으로 전체 고용인원(광주 63만8천명, 전남 90만4천명) 중에서 74%와 53%를 차지했지만 이 역시 10년 전 보다 각각 4.5%, 4.1%씩 감소한 수치다.

반면 50~60대 취업자는 늘어 광주의 경우 10년 전에는 10만1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였지만 지난해에는 24.2%까지 늘었다.

광주·전남 20대 취업자 수



전남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고용인원이 1998년 99만4천명에서 지난해 90만4천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으며 이중 50~60대 취업자 비율이 41.2%에서 45.7%까지 늘었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구직을 위한 청년층의 타지 전출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면서 더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남지역의 경우 1998년 217만1천24명이던 전체인구가 2008년 191만9천명으로 11.6%나 감소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손민중 연구원은 "생산현장의 주축인 20~30대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결국에는 전반적인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봄볕 속 메주 주렁주렁 입춘인 4일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 주민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된장을 담그기 위해 메주를 만들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만들어 주렁 주렁 매달아 놓은 메주는 보는 이들에게 푸근한 고향의 정을 느끼게 한다. /위직량기자 jrwi@

전국 명물된 순천 도심속 '한옥글방'

문화예술 전문 도서관
62개 지자체 벤치마킹

전국에서 처음 전통 한옥으로 만들어 문을 연 순천시 한옥글방 도서관이 특색있는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순천시가 지난해 1월 향동에 폐업한 한정식집 부지를 사들여 건립한 한옥글방 도서관을 1년 동안 이용한 사람은 모두 1만 2천여 명이나 된다. 895㎡의 부지에 전체 면적 112㎡로 1천700여 권의 장서를 갖춘 한옥글방은 전체 도서 가운데 700여 권을 문화예술 책으로 채운게 특징. 여기에다 글방은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춰 각종 기획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 문화 지킴이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옥글방 도서관은 지난 1년 동안 기획문화프로그램 8회(4천230명), 상설프로그램 72회(1천543명), 문화예술 프로그램 20회(2천500명)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전통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옥글방의 명성이 알려지자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해 62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50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4월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상완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이 방문하기도 했다.

한옥글방 운영자 이미자(여·43)씨는 "올해는 규방공예, 생활수묵화, 전통공예 체험행사, 영상실황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한옥글방은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J프로젝트 승인 또 연기

중도위, 공간 범위 확정 뒤 이달말 재심의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또다시 보류됐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4일, J프로젝트 6개 사업지구 가운데 삼호와 구성 등 2개 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중도위 심의 결과 '도시계획 공간의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중도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개발계획 승인이 신청된 2개 지구를 나머지 4개 지구와는 별개의 공간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심의해야할지, 또는 전체 6개 사업지구의 일부로서 심의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위원들은 이에 따라 전남도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토해양부 3자가 의견을 조율,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공간적인 범위를 결정한 뒤 이달 말 열리는 중도위에 다시 상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빠른 시일 내에 문체부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의 공간적인 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며,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미뤄진 나머지 4개의 사업지구 가운데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삼포와 부동 등 2개 지구를 '도시계획의 공간적인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중도위가 '도시계획 공간설정'이라는 뜻밖의 문제를 들고나와 당혹스럽다"면서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중도위에서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성년 20세→19세

민법 51년만에 확 바꾼다

성년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51년 만에 민법을 대대적으로 고치는 작업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3면〉

법무부는 4일 과천 청사에서 교수, 판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법 개정위는 ▲계약 및 법률행위 ▲행위능력 ▲법인제도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 ▲체계 및 장기과제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개정위는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선거법상 선거권자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에 맞춰 만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확대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비영리법인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꿔 설립을 간편하게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